

남구, 양림동 선교사 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전

2021년 국가유산청 ‘우선 대상’ 선정
오웬기념각·우일선 사택 등 7곳 대상
청주·공주·전주 등 8개 지자체 협력
아시아 첫 ‘개신교 등재 사례’ 기대

광주 남구가 양림동 선교사 묘역과 일대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등재 신규 목록 발굴 용역’ 결과 양림동을 포함한 선교기지 유적이 우선 추진대상 목록에 오르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수피아 홀 ▲커티스 메모리얼 홀 ▲윈스브로우 홀 ▲수피아여학교 소강당 등 7곳이다.

양림동은 190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의료·교육·선교 활동을 시작한 이래 120년 가까이 한국 근대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중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현존하는 광주 최고(最古) 서양식 건축물로 근대 건축사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피아여학교 소강당과 수피아홀은 광주 여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양림동은 서울·청주·전주 등 전국 다른 선교 기지와 달리 결핵·나병 환자를 돌본 의료 선교 기록을 간직하고 있어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는다.

남구는 지난해 문화재청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쳤다.

용역 보고서는 유적 7곳의 현황을 조사해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세부 분석했고, 원형 보존 상태가 뛰어나 세계유산 등재 요건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남구는 지난 6월 청주·공주·전주·김제·목포·순천·대구 중구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선



광주 남구가 양림동 오웬기념각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 등 7곳의 선교기지 유적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전경. <광주남구 제공>

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전국에 흩어진 선교기지를 하나로 묶어 등재를 추진하고, 8월9일 국제 성지순례 코

스 등 국제 관광상품으로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위탁 운영하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회장을 맡아 총괄한다.

참여 지자체는 각각 1천만원씩 예산을 분담하며, 등재 이후 유지·관리 비용 역시 공동 부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 실사 ▲세계유산위원회 최종심의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며, 남구는 해당 과정을 거쳐 2030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로 예루살렘 방문이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이 아시아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며 “양림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첫 개신교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광산구,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확대

14개 병원과 협약...작년 9곳→23곳

의료·돌봄 연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주365재활병원 등 14개 지역 병원과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 사업은 퇴원 전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신체·기능 수준을 파악해 건강관리,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퇴원 전 사회복귀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행정·정보·인적 자료를 연계해 퇴원 이후에도 지원에 끊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인 광산구는 지난해 9개 병원과 1차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23개로 확대했다.



새롭게 참여한 14곳은 ▲광주365재활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요양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산돌요양병원 ▲상그릴요양병원 ▲세계로병원 ▲신가병원 ▲일등요양병원 ▲우리요양병원 ▲자연요양병원 ▲한사랑병원 ▲허그요양병원 ▲호남THE선요양병원

등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퇴원은 단순한 치료의 끝이 아니라 일상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자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돌봄 연계 구조를 정착시켜 주민들이 터전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동구,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내달 22일 ‘광주동구랑페이’ 발행

광주 동구가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사용자 가맹점을 모집한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22일부터 ‘광주동구

랑페이’를 발행한다.

동구랑페이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naver.me/GT804sQe)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는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 고객 유치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동구랑페이는 지역사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라며 “많은 동구 내 사업장들이 가맹점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구랑페이는 1인 한도 50만원까지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안재영 기자

‘증축 완료’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활짝’

4층 다목적실 등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 호우피해 지원 성금 기탁

광주 북구는 “최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증축 공사로 4층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소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됐다.

기념행사 당시 양산동 자생단체 9곳(주민자치회, 통장단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방위협의회, 경로당연합회)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호우피해 지원 성금’ 320만 원을 북구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북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되며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용석 양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며 “적재적소에 활용돼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 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우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어준 양산동 주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북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서구, 세큰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교육

내달 4일까지 프로그램 5회 운영

광주 서구의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마을자치학과에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지난 14일 ‘세큰대 마을자치(전문)학과 아파트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아파트학교는 주민들이 생활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5회 운영된다.

이 밖에도 서구는 지속 가능한 아파트공동체 조성을 위해 이웃과 눈 맞추고 인사하는 ‘미소 띠고 인사하기(미·인·서구)’ 캠페인과 기후위기·재난 대응 시민실천 활동 ‘WAVE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액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